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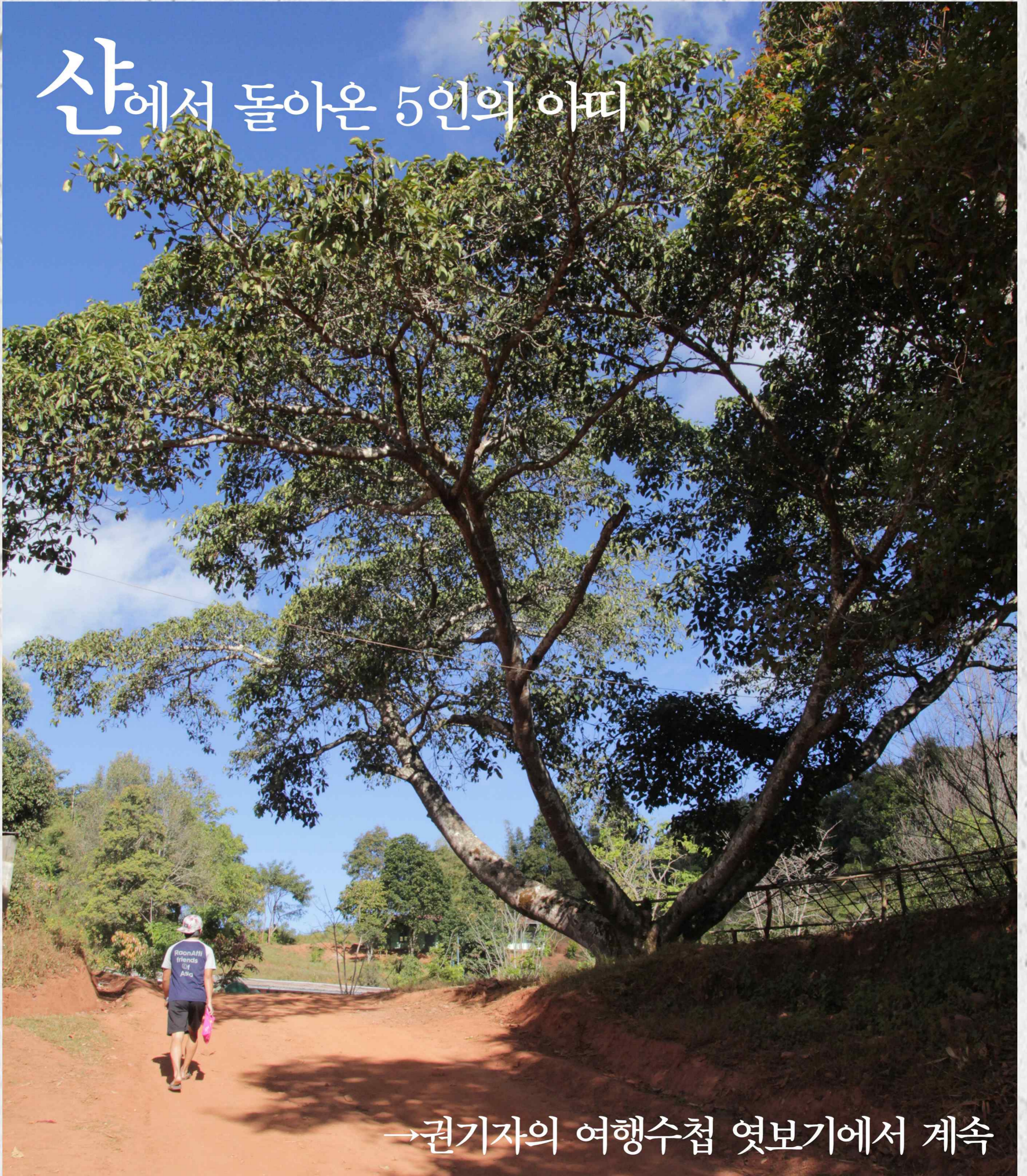
MONTHLY MYANMAR

월간버마

Edit by 라온아띠 미얀마팀

DECEMBER 1 - 31, 2014

산에서 돌아온 5인의 아띠



→ 권기자의 여행수첩 엿보기에서 계속



그러나 처음부터 이곳 아이들과 작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며, 매번 작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방문하던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고 고민중에 위험하지 않고 간단한 작업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한 아씨는 밝혔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방해가 되기보다 주어진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스로 작업에 참여했다는 인식을 함으로써 아띠스쿨에대한 애정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송다정 아씨는 밝혔다.

또한 작업을 통해 오랜만에 복잡한 생각없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벽화를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는 활동이 활동소재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활동중 하나라고 판단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인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같이 참여하며 진행된다면 눈에 보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필자는 소감을 밝힌다. 또한 그것은 어떠한 활동의 소재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소견을 밝힌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아띠스쿨의 모습에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박박’ 어디선가 벽 긁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흘랑따이아 마을에 페인트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다섯명의 아띠들은 약 3개월 전(10월)부터 아띠스쿨을 진행해 왔으며, 한달여의 건물 조사 및 현지 코디네이터(산드라)와의 회의를 통해 11월부터(1주일 2회) 건물 보수 작업 및 환경개선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벽 작업(갈라짐 보수, 그라인딩, 실리콘 작업, 페인트 작업), 칠판제작 작업을 80

퍼센트 이상 마무리 한 상태이다. 앞으로 돌아오는 1월까지 벽, 칠판 및 바닥(청소 및 왁싱)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작업은 아띠5명을 포함하여 YMCA의 우따난(사무총장),산드라(코디), 우웬토우, 목수 및 흘랑따이아 YMCA직원들과 같이 이루어 졌다. 또한 아띠스쿨 학생들과 작업을 같이 진행하기에 상호협력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 하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파티도 처음인데 준비까지 내가 한다고?

불교, 무슬림, 힌두, 무교, 기독교 할것없이 크리스마스는 전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아진지 오래이다. 하지만 산타의 밥줄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지 못한다면얼마나 큰 아쉬움이 남을까. 때문에 5명의 아띠들은 흘랑따이아 아띠스쿨과 널서리 스쿨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였다.

아띠스쿨은 2차시로 계획하였으며,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 (트리 - 아띠제작/모빌만들기, 종이접기 - 공동)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로 프로그램은 구성되었다.

트리는 아띠들이 사전에 페 박스와 포장지로 제작하였으며, 아띠스쿨 학생들은 아띠들과 트리를 장식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아띠들은 트리가 주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의미와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파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를 같이 만드는 활동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트리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모습을 보였으며 파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전 수업에 만드는 결과물들을 아이들은 보통 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장식들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띠들의 파티에대한 설명과 만들어지는 트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런 트리를 장식하는데 더욱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19일 아띠들은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트리와 함께 다과회를 준비하여 파티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파티 당일에는 부모님께 선물할 카드를 제작하는 프로그램 도 진행되었다.

파티는 무사히 치러졌으며 집으로돌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고 송다정 아씨는 소감을 밝혔다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본격 쉼베따 수업탐구

쉐피따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지 4개월째. 교사활동 초반 엉성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던 아마추어 교사들이 그간 많은 것을 보고 배워, 능숙한 프로교사 되는 법을 공부하고 있다. 아띠들 개개인의 학년별 학습스킬과 느낀 점이 매우 다양하다. 12월 4일, 11일 두 차례 진행된 수업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 재미가 상당하다.

<Prep-백종석아띠>

4일- 백종석아띠가 장염에 걸려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11일- <동물그리기> 원래는 크리스마스 날 받고 싶은 선물 그림그리기를 계획 했었으나 프렙반 담임선생님과 의논 끝에 좋아하는 동물그리기로 수업이 급변경 되었다. 그림그리기가 서툰 아이들이 몇명있어, 예시로 펭귄, 닭 등을 그려 설명하였더니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다. 갑작스레 계획이 변경된 것치고는 모두가 흡족했던 수업이었다.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다. 갑작스레 계획이 변경된 것치고는 모두가 흡족했던 수업이었다.

<1학년-권희설, 신태정아띠>

4일- <체조> 새로운 형식의 수업을 고민하다 체조수업을 떠올렸다. 매일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하니 굉장히 재미있어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띠들의 수업진행이 버벅대, 학생들의 집중도가 흐려졌다. 더욱 탄탄한 수업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11일- <모자이크> 본인의 손바닥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신문지를 찢어 붙이는 모자이크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리에 안 앉으면 안준다.' 는 말을 배워가 참 다행이었고, 아띠 둘 간의 호흡이 잘 맞아 첫 조별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수업 후에 완성된 작품을 모두 견으려 했으나 개인소장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 아띠들간의 고민이 있었다. 결국 소장할 사람은 소장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 아띠들간의 고민이 있었다. 결국 소장할 사람은 소장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흘러갔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 듯 했다.

<2학년-송다정아띠>

4일- <영어단어 공부> 앞면에는 알파벳, 뒷면에는 동물 영단어가 적힌 카드를 준비한다. 카드를 다함께 읽고 한명씩 칠판 앞으로 나와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이 어색한지 다수 앞에 나서는 것을 쑥쓰러워 했고, 칠판을 사용하는 것을 어색해 했다. 하지만 그림그리기 덕분에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곧장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11일- <체조> 수업 시작후 20분이 지나니까 준비해간 체조 소재가 푹 떨어졌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듯 했다.

<3학년-김정식아띠>

4일- <한국어> 한국드라마에 나오는 간단한 정도의 회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전 정규수업에 아이들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재미 위주의 수업이 필요해 보였다.

11일- <합체 모자이크> 동물의 부분별 조각 도안을 나눠주고 색종이를 찢어 붙인다. 붙이기가 끝나면 조각을 합체해 하나의 동물 이미지를 만든다. 찢어 붙인다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더니 점점 호응이 좋아졌다. 수업 끝나기 10분전 완성물을 합체해 동물을 보여주니 학생들이 흥분하며 좋아하였다. 완성물은 선생님께 교실안의 전시를 부탁드리며 전해드렸다. 김정식아띠는 다음 수업으로 개인소장 가능한 만들기 수업을 계획 중이다. 그림같은 찢어지기 쉬운 것이 아닌 오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본인을 기억했으면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4학년은 진급평가 준비로 인해 수업이 없었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도서관 밖으로, 아띠클럽 피크닉 가다

양곤 YMCA의 도서관에 위치한 아띠클럽(AT-tuTtu Imagine Club)은 12월 20일,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피크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피크닉 장소는 시청과 술래 파고다 옆에 위치한 Mahabandoola's Garden으로, 독립기념비가 있는 다운타운의 거의 유일한 공원이다.

이들은 11월 1일 오픈 이후 양곤 청년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위주로 클럽을 꾸려왔으며, 매주 5~6명의 청년들이 꾸준히 참석해오고 있다. 이날은 웨벤펀, 계계, 보미, 설령, 추이몽, 5명의 아리따운 여성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 중 아무도 공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해 아띠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간식은 공원으로 같이 걸어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사는 식으로 준비했다. 김정식 군(21)은 "각자 먹고 싶은 간식을 사는 방식이 좀 낯설긴 했지만 다 같이 나눠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신선한 방식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공원은 주말이라 붐볐고, 잔디는 약간 축축했다. 자리를 잡고 둥그렇게 둘러앉은 뒤로는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함께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신태정 양(21)은 피크닉이 끝나고 "물론 즐거운 시간이지만, 앞으로의 클럽운영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더 의미가 깊었을 것" 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저녁 6시가 되어 해가 저물고, 공원 폐장 시간이 되어 짧은 피크닉을 종료해야만 했다. 클럽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웨벤펀 양(23)은 "이번 기회에 처음 공원에도 와보고, 클럽 사람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릴 것" 이라며 만족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아띠클럽은 미얀마팀의 일정과 연휴와 겹쳐 다가오는 2주 동안 휴식을 갖는다. 송다정 양(25)은 "이번 일탈은 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클럽은 빈약한 참여 계층, 제한적인 소재와 같이 고민 해봐야할 문제도 여럿 안고 있다. 이번 휴식 기간 동안 함께 숙고해보고, 다가오는 신년에는 클럽의 단단한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포부를 밝혔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들러리여도 괜찮아

올 12월은 양곤팀에게 크리스마스의 달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았다. 그중 양곤팀이 초대받았던 두 번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다음에 전한다.

양곤 Y 널서리스크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양곤 Y 건물 1층 대형홀에서 널서리스크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열렸다. 늘 입던 유치원복 대신에 개성 넘치는 패션과 화장으로 한껏 꾸민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섰다. 발표회 입장료는 5000 찻이었으나 아띠들은 무료입장했다.

발표회는 커플 콘테스트-캐롤송 합창-연극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태정 아띠와 김정식 아띠는 커플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고심 끝에 베스트커플 세 쌍을

선정한 신태정 아띠는 “다들 너무 귀엽고 감쪽해서 점수를 매기기가 매우 힘들었다” 고 밝혔다. 뒤이은 캐롤송 합창을 감상한 백종석 아띠는 “아이들이 11월 중순부터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발랄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다” 고 소감을 전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끝으로 발표회는 마무리되었다. 피곤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온 아이들은 구경 온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흘랑따야 마이크로 파이낸스 크리스마스 파티

양곤 Y에서 매해 주최하는 흘랑따야 마이크로 파이낸스(이하 줄여서 MF) 클라이언트들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12월 24일 열렸다. 양곤 Y 스태프들과 약 40명의 주민 클라이언트들이 깡홀라 Y 데이케어센터에 모였다.

주민들은 함께 캐롤송을 부르고, 양곤 Y의

이사회 멤버이자 깡홀라 Y 클리닉 방문 의사인 우뎨라의 축사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MF사업 깡홀라 담당 스태프인 메리진이 성경 중 몇 구절을 낭독했다. 파티를 위해 MF사업 담당자인 산드라는 비리야니 라이스를 주문했다. 아띠들도 주민들 사이에 앉아 식사를 같이 했다. 점심식사 뒤에는 풍선 터뜨리기, 나뭇가지 통에 넣기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주민들은 론지 1벌, 안티 박테리아 세제, 스테인리스 컵, 그리고 담요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 레크리에이션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은 몇 가지 선물을 더 받았다. 초대 손님인 아띠들이 선물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어색해하는 주민들도 선물을 한 아름 안고는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갔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노끌라바에도 산타가 오나요?

노끌라바(North Okkalapa) 널서리에는 원래 산타가 오지 않는다. 아띠들이 오기 전까지는 따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띠들은 우여곡절 끝에 노끌라바에 계속 가기로 결정했고,(11월호 참고) 그 구체적인 첫 번째 계획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했다. 코디네이터 산드라의 도움과, 널서리 선생님들과의 조율로 파티는 12월 18일로 결정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아띠들은 작은 선물봉지를 대량으로 준비했다. 봉지 안에는 과자 여러 개와 울산 YMCA에서 보낸 연필을 넣었다. 널서리 자체적으로도 음식을 마련했는데, ‘시제’ 라는 볶음 면을 준비했다.

당일 널서리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전통의상과 화장으로 꽃단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많았지만 부모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교회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아띠들과 함께 캐롤송을 몇 곡 부르고, 선물 추첨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선물꾸러미들을 보고 흥분해서 이수라장이 될 뻔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줄을 세울 수 있었다. 파티 자체는 짧아서, 선물을 하나씩 받은 아이들은 곧 아띠들의 선물봉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송다정 양(25)은 “파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았다. 프로그램을 더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들의 일정상 그럴 수 없었다는 게 아쉽다.” 며 소감을 밝혔다. 아띠들은 파티를 끝내고 바로 쉐빠따에 수업을 하러 가야만 했다.

노끌라바엔 올해도 산타가 오지 않았다. 다만 아띠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파티만이 있었을

뿐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김정식 군(21)은 “이번이 시작이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알게 되었으니, 산타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 라며 “좋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란다. 호호.” 라며 미소 지었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레츠 파뤼! 파뤼!

도시 양곤에서부터 헐랑따야 마을 깊숙이 한 주택가까지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주르륵 달려있다. 크리스마스가 몇 주나 남았는데도 마음이 설레고 분주한 것은 한국, 미얀마 할 것 없이 똑같은듯했다. 이 상황을 이어받아, 아띠들이 아심차게 헐랑따야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였다. 이 계획은 11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코디인 산드라와 각 사이트별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아띠스쿨에서는 매주 크리스마스 장식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왔고, 파티 전 날에는 과자포장을 끝마쳤다. 그리고 19일 헐랑따야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널서리스쿨 파티는 기존 보조교사로 들어가던 여자아띠들이 함께 하였다. 크리스마스 캐롤 함께 부르기를 시작으로 풍선아트를 진행하였다. 아띠들의 탄탄한 계획들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유아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있었다. 썰렁한 분위기에 아띠들 또한 모두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신태정 아띠가 재롱을 부리기 시작했다.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며 풍선을 가지고 춤을 춰댔다. 기적적으로 그 후 몇몇 유아들이 조금씩 키득대기 시작했고 차갑던 분위기는 아주 조금씩 녹아갔다. 비장하게 계획했지만 어딘가 미흡했던 널서리파티는 그렇게 엉성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곧 이어 옆 건물에서 아띠스쿨 파티가 열렸다. 평상시와 다르게 조용한 아이들.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모두들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에 몰두 중이었다. 카드는 받는사람도 다르고 그 모양 또한 다양했다. 아띠스쿨의 멤버인 킹베에소(11)는 ‘불쌍한 우리 아띠 언니, 오빠들도 제 뜨끈한 사랑이 필요할 것’ 이라며 아띠들 중 가장 외로워 보이는 한 사람에게 본인이 정성껏 만든 카드를 전달했다. 이에 카드를 받은 멤버는, 미안마어로 적혀 있는 카드의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서 풍선아트 시간으로 연결되었다. 아띠들이 풍선으로 칼을 만드는 시범을 보이면 아이들이 풍선에 바람을 아슬아슬하게 불어넣으며 만들기를 따라했다. 색색깔의 풍선을 보고 흥분한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처럼 푸근하고 엄한 캐릭터의 김정식아띠가 이를 여유롭게 통제하였다. 후에 박스 트리를 중심으로 모두 함께 둘러앉았다. 30명 인원에 15개 남짓되는 작은



과자 봉지를 뜯었다. 번쩍거리는 박스트리와 하나씩 손에 쥐고 있는 풍선 칼이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기분에 젖게 만들었는지, 과자의 양이 얼마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을 자리에 앉아 신나게 떠들며 간식을 먹었다. 널서리 스쿨에 이어 아띠스쿨까지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에 지친 몸이었던 아띠들은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본 적이 언제였는가..’

아띠들은 신이 잔뜩 나있는 아이들을 보고 덩달아 신이나, 간질대는 행복함을 참지 못하고 피식피식 웃어대고는 했다. 한 달간 파티를 계획하며 걱정했던 성공률의 정도는 확실히 매겨낼수가 없었다. 마을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메리크리스마스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고함소리를 들으며 크리스마스가 정말 왔구나. 생각이 들게 할 뿐이었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WANTED



이름: 권희설
별명: 갓과꾸
먹이: 온 갓 간식
출몰지: 고구마 가게 앞
특징: 설 틈없이 간식을 먹음, 보거스 닳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다소 폭력적임, 패션의 완성은 대한항공 담요



이름: 송다정
별명: 방기방가 송토리
먹이: 해바라기씨, MILO 초코우유, 두유
출몰지: 노골라바 널서리 ‘아우짜민’ 유아 옆
특징: 흥정의달인, 그녀와 함께라면 쇼핑은 검검검, 다정공방을 열어 별의 별것을 다 만듦, 보라색을 아주 좋아함



이름: 신태정
별명: 코통령(코코대통령)
먹이: 잡식
출몰지: 이름 모르는 길 어딘가 (아이들 손잡고) 5층 WIFI ZONE
특징: 아이들이 주는것은 다 받아먹음, 눈썹 시술소, 아깁 그리고 근검절약 찌마 냄매 딸라? (내이름 아냐?)를 연발함

캐럴-한밤의 일탈?!

12월 20일 새벽 4시경, 졸음과 피곤에 찌든 다섯 아띠들이 양곤 Y 일층 로비에 도착해 만나는 사람마다 씩 웃어 보이며 '메리 크리스마스!' 를 외치며 숙소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 시간까지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 클럽에라도 다녀온 것일까. 술이라도 마신 것일까. 의심스러운 그들의 지난 13시간을 파헤쳐보았다.

12월 19일

오후 3시. 다섯 아띠들은 흘랑따야에서 한창 파티중이었다. 하루 종일 80명의 아이들과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 크리스마스 파티에 아띠들은 신이나 있었지만 적지 않게 피곤해 보였다.

오후 4시. 아이들을 보내고 환경개선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창틀과 칠판과 칠판뒤쪽 벽에 페인트칠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오후 5시. 그들은 흘랑따야에서 양곤으로 가는 버스를 올라탔다. 활동 일정이 끝이 나고 숙소로 향하는 듯해 보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오후 6시. 숙소 근처가 아닌 부다가 근처에서 갑자기 내려버렸다. 내려서 딱히 어디로 향하지 않고 옆에 할머니께서 파시는 옥수수를 사들고 가로등 밑에서 열심히 먹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오후 6시 반. 이상 행동이 포착되었다. 송다정 아띠가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기 시작했고 김정식 아띠는 머리에 무언가를 뒤집어쓰고 광기어린 '장기하와 아이들' 의 립싱크 무대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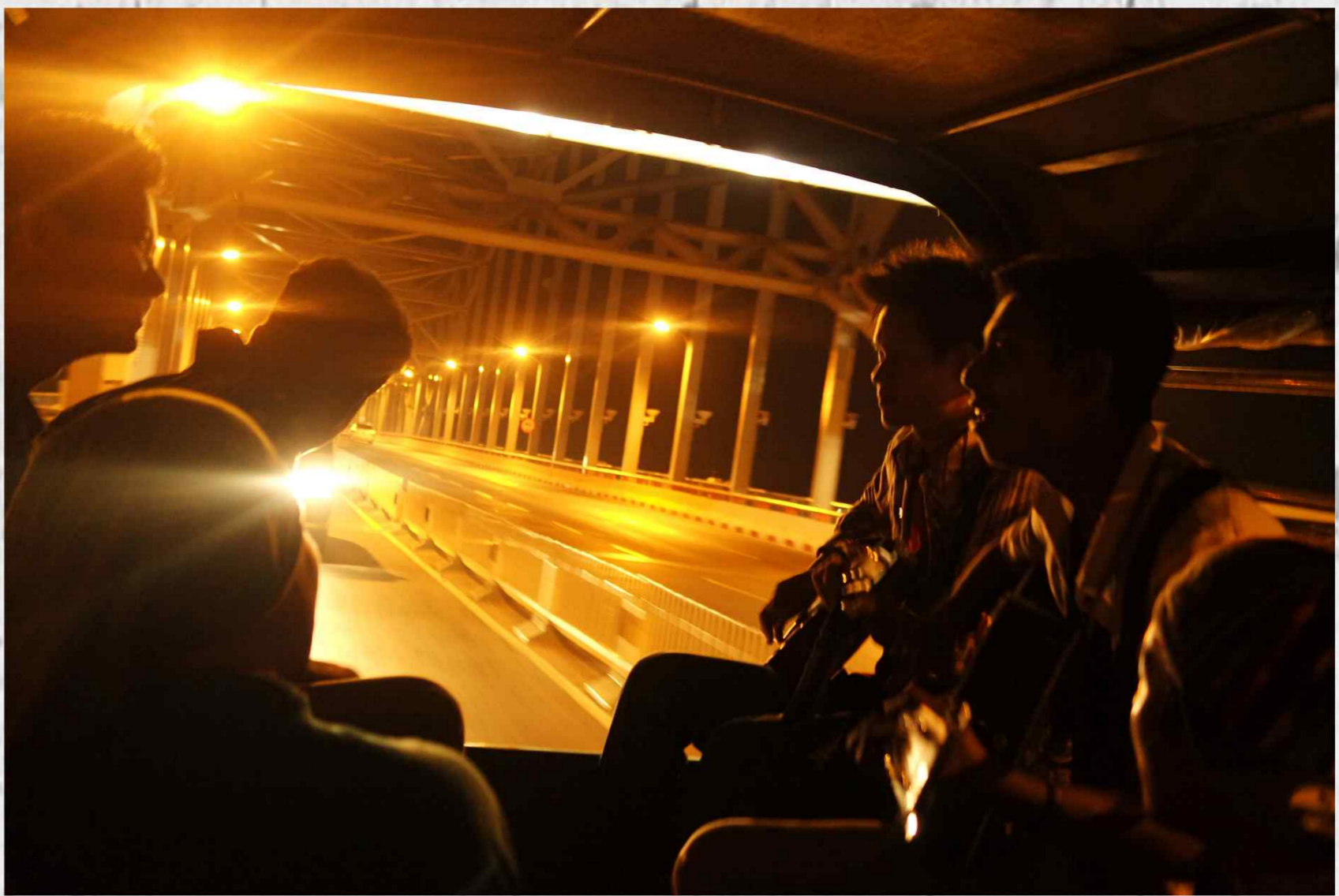
신태정 아띠는 신들린 춤사위를 보였으며 나머지 아띠들도 흐느적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누군가를 위한 공연은 아닌 듯해 보였다.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하는 듯해 보였으나 주위의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오후 7시. 4차선 도로를 건너가 건너편에 도착한 2대의 밴과 1대의 하이렉스(트럭 뒤편을 개조한 버스)중 하이렉스에 올라탔다. 그들과 하루 종일 동행하시던 우웬투 할아버지는 올라타지 않으시고 아띠들에게 손을 흔들고 건너편으로 사라지셨다. 그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오후 8시. 20명이 넘는 양곤Y 스태프들 속에 섞여 어느 아파트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손에는 이것저것 먹을 것들이 들려있었으며 매우 즐거워 보였다. 아파트에서 나온 그들은 곧장 하이렉스에 올라타 어디론가로 향했다.

오후 9시. 양곤Y 어느 이사님 댁 문 앞에서 아띠들을 볼 수 있었다. 30명의 가까운 거대한 무리는 대문 앞을 애워싸고 큰소리로 외쳤다. 'Merry Christmas to you all!' 그리고 늦은 시간이 무색할 만큼 큰소리의 캐럴 메들리가 시작되었다. 열심히 영어 캐럴을 따라 부르던 아띠들은 미안마 캐럴 차례가 되자 가사를 모르는지 온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그들은 더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

오후 10시. 하이렉스를 타고 양곤에서



흘랑따야를 이어주는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 아띠들을 보았다. 하이렉스는 스태프들과 아띠들이 치는 기타소리와 밤공기를 가르며 젊은이들의 노랫소리를 흘리며, 늦은 시간이라 한산한 다리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양곤 밤 드라이브에 정신이 팔린 아띠들은 밝은 가로등 불빛을 얼굴로 받으며 노랫소리에 고개를 까딱이며 행복해 보였다.

12월20일

오전 12시. 아띠들은 캐럴을 부르고 어느 이사님 댁에 들어가 복닥복닥 거실에 앉아 모헝가(생선스프에 국수)를 얻어먹고 있었다.

오전 2시. 야행성인 아띠들은 제법 잘 버티고 있었다. 다만 새벽이라 기온이 좀 떨어져서 달리는 하이렉스가 추운듯해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아침형 인간인 권희설 아띠는 조금 피곤해 보였다. 스태프들도 많이 피곤했는지 몇 명은 캐럴을 포기하고 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전 3시. 마지막 캐럴을 부르고 하이렉스에 올라탄 아띠들은 긴장이 풀렸는지 급격하게 지쳐 보였다. 하이렉스 바닥에 주저앉은 아띠들은 의자에 엎드려 빠른 속도로 꿈나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오전 4시. Y에 도착했다는 기사님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난 아띠들은 하이렉스에서 내려 추운 몸을 추스르며 일층 로비에 도착했는데, 언제나처럼 근무 중이던 리셉션의 직원이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는 모습에 아띠들도 웃으며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외쳤다. 하지만 역시나 피곤을 이기지 못하겠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자취를 감추었다.

양곤 YMCA는 매년 크리스마스쯤 어느 하루를 선택해 참여 가능한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아 오후 3-4시부터 시작해 20명이 넘는 이사회 멤버들의 집을 돌며 캐럴을 부르며 즐거운 연말과 연초를 빌어드리는 연중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사님들은 그러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작은 간식을 준비해 나누어 주신다고 한다. 거의 20채의 집을 들른 아띠들은 수많은 간식들을 달리는 차안에서 먹었다고 한다. 권희설 아띠는 너무 많이 먹어 다음날까지 체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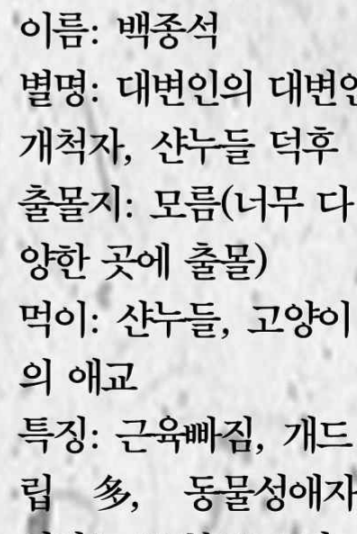
즐겁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양곤 Y만의 크리스마스 전통 덕분에 아띠들은 즐겁고 아름답고 배부른 밤을 보냈다고 한다.

송다정 기자 (djhits1626@hotmail.com)

WANTED



이름: 김정식
별명: 토인, 대변인
출몰지: 화장실 변기
먹이: 액따또또(순대)
편의점 햄버거
특징: 의외로 약함, 애들이 만만하게봄, 애교쟁이, 눈썹미남, 괴성, 영화기억 불능



이름: 백종석
별명: 대변인의 대변인
개척자, 산누들 덕후
출몰지: 모름(너무 다양한 곳에 출몰)
먹이: 산누들, 고양이
의 애교
특징: 근육빠짐, 개드립 多, 동물성애자, 영화는 30분보고 잠



칙힌!

12월 25일,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 아띠들은 방에서 뒹굴고 있었다.

18일부터 수많은 사이트들의 파티진행과 Y에서 지원하는 활동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들에 초대되어 불러 다니느라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던 아띠들은 조금은 지쳐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필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은 음식 없이 보내고 싶지 않아 또 다시 상상하기 힘든 고향의 요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권희설 아띠와 시장에서 닭 두 마리(무려 2.7키로)와 감자, 양파, 마늘, 케첩 그리고 식용유를 사왔다. 숙소로 돌아와 신태정 아띠와 권희설 아띠에게 야채 손질을 맡기고 필자는 다시 화장실에서 닭과의 싸움으로 30여분을 갇혀 있었다.

(닭 손질 과정은 비위가 약한 분들을 위해 생략하겠다.) 어느 때와 같이 승리한 필자는 닭이 수북한 냄비를 들고 나왔고 웨지감자튀김으로 변신할 감자들이 이미 예쁘게 손질되어 있었다. 까놓은 양파의 절반은 양념치킨 소스에 투하되기 위해 다져졌고, 나머지는 튀겨지기 위해 썰어졌다. 마늘도 소스에 투하될 3분의 1은 다져졌고 나머지는 통마늘 튀김이 되기 위해 대기를 타고 있었다. 냄비에 닭들에게 얼음과 한국에서 가져왔던 부침가루를 투하했다. 필자의 어머님께서 닭튀김 할 때 닭 잡냄새를 잡기 위해 쓰시는 비법을 도용해 카레가루를 조금 투하했다. 얼음이 녹으며 닭에게 냉튀김옷이 입혀졌고, 튀겨질 감자와 마늘과 양파에게도 소량의 부침가루가 입혀졌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우리는 기름과의 전쟁을 치르러 옆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신태정 아띠와 권희설 아띠의 도움으로 모든 튀김들은 바삭함을 위해 2번씩 튀겨졌고, 한켠에서 필자는 숯을 때어 양념치킨 소스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다(전기 화로가 하나밖에 없다). 미리 완성된 절반의

후라이드 치킨은 소스에 투하되어 예쁜 빨간 옷을 입어 양념치킨으로 재탄생 되었다. 백종석 아띠는 완벽한 치맥/치콜의 조합을 완성하고자 마트에 가서 맥주와 콜라를 사왔고, 또한 부엌에 있던 여자 아띠들에게 시원한 콜라를 조달하며 더위를 식혀 주었다.

아띠들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일하느라 수고하는 Y스텝들에게 치킨을 나누어 주고, 방에서 조출한 치킨파티를 열었다. 맛있으며 장사해도 되겠다는 아띠들의 칭찬에 힘입어 필자는 귀찮지만 조만간 또 다시 요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김정식 아띠는 매번 필자가 요리를 할 때마다 무슨 마가 끼었는지, 이번 요리 때는 열이 나서 방에 쓰러져 있었다. 아쉽게도 따뜻하고 바삭한 치킨은 맛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식은 치킨 몇 조각을 맛보았다.

그렇게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뜨겁고도 조출하게 지나갔다.

송다정 기자 (djhits1626@hotmail.com)

아띠 2014!

연말은 그 누구나 정신없이 바쁘기 마련이지만, 라온아띠 양곤팀은 정말 그 누구보다(연예인만큼이나) 바쁘고 정신없으며 행복한 31일을 보냈다.

12월 31일은 한해를 마무리 하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날로, 그 누구에게나 평범한 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양곤팀에게 12월 31일은 정말 그저 그런 날이 아니었다. 그날은 바로 양곤팀의 막내 김정식 아띠의 생일이었다.

밤새 산에서부터 심야버스를 10시간 동안 타고 새벽 6시에 숙소로 돌아온 아띠들은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었다. 방문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간소한 생일선물 전달식과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뒤로하고 아띠들은 방에 들어와 5일 만에 기쁨의 샤워를 했다. 목욕재개를 마친 그들은 아침식사를 하고 취침모드에 들어갔다.

그날 그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2개의 연말파티에 초대되어 있었다. 4시에 아띠클럽을 통해 친해진 Thwe Thwe Win(23, 이하 뽀뽀)네 집에서 열리는 연말파티와 6시 산드라(현지코디)네서 열리는 '과일럼주 연말파티' 였다.

2시쯤 일어난 아띠들은 외출 준비를 했다. 산주에서 선물로 사온 전통가방을 챙겨 서둘러 뽀뽀네 집으로 출발했다. 뽀뽀네 집은 아파트 건물 가장 꼭대기 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집 앞에 작은 발코니에 테이블과 8-9명이 둘러앉을 수 있게 의자가 놓여 있다. 쉼다곤 파야가 보이는 멋진 전망과 시원한 발코니에서 우리는 뽀뽀 어머니께서 전날 밤부터 밤새 만드신 라카인 음식을 대접받았다. 뽀뽀네 가족은 양곤에 살고 있는 라카인 족이다. 이전 뽀뽀네 집 방문 때

아띠들은 이미 라카인 음식을 맛본 적이 있었고, 그 맵고 자극적인 맛이 특징인 라카인 음식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날 뽀뽀네 어머니께서 선보이신 첫 번째 음식은 다섯 아띠들의 만장일치 사랑을 받고 뽀뽀 또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밝혔던 샳난(Sat Hnan). 조와 견과류가 들어간 따뜻하고 달달한 스프이다. 두 번째는 만들기 힘들지만 아띠들이 너무 좋아해 계속 어머니께서 만드신 응게팔아살뽏(Ngae Phal A Sar Thyut). 작은 생선 어묵 속을 새콤하고 매콤한 야채절임으로 채운 음식이다. 아띠들은 매워 땀을 흘리면서도 정말 많이 먹었다. 세 번째는 바나나 잎에 싸여진 달콤한 코코넛 떡 모팻도우(Mote Phat Htote). 거기에 볶음국수와 생선직화구이까지 내어주셨다.

→다음 장에서 계속



‘이렇게 배불러 다음 파티에서 어떻게 뭘 더 먹지’ 라며 고민하면서도 아띠들의 수저는 멈출줄을 몰랐다.

오랜만에 만나 더욱 반가웠던 아띠클럽의 다른 멤버인 Thazin Nwe(23)와 Chue Ei Mon(23) 그리고 처음 만난 3명의 뽀빠 다른 친구들까지, 북적북적하게 미얀마 젊은이들 틈에서 즐겁고 배부른 시간을 보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다보니 어느새 6시가 다되어갔고, 아띠들은 서둘러 감사의 인사와 ‘Happy New Year’을 외치며 걸어서 5분 거리인 산드라의 집으로 향했다.

산드라의 집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일층 마당에는 작은 아띠의 친구들이 초대되어 있었고 2층 테라스에는 아띠들과 함께 산에 다녀왔었던 13명의 싱가포르 유스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긴 테이블 가득 볶음밥과 튀김들과 고기꼬치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술 주전자에는 과일럼주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산드라는 오늘을 위해 작은 드럼통 한 통에 과일럼주를 미리 담아놓았다고 했다.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띠들은 본격적으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부른 배를 끌어안을 때 즈음, 산드라의 요청으로 1층 거실에서는 작은 공연이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유스들의 춤과 노래, 김정식 아띠의 창, 미얀마 유스들의 노래, 합동 비트박스 공연, 싱가포르 예비군 유스의 군가, 그에 답례로 예비군 아띠(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다)의 군가, 등 끊임없는 장기자랑으로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특히 권희설 아띠는 눈물까지 흘리며 즐거워하였다고 신태정 아띠는 증언하였다.

싱가포르 유스들이 Y숙소로 돌아가고도 한참을 더 양곤팀 아띠들은 2층 테라스에서 산드라와 산드라의 큰아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와 수다를 떨며 과일럼주를 축냈다.

10시쯤 되었을 무렵, 아띠들은 파티에 초대되었던 3명의 젊은 Y 스텝들과 택시 한 대에 사이좋게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10시 반쯤 숙소에 도착했고, 때마침 그때는 김정식 아띠가 태어난 시간이라서 아띠들은 사랑을 담아 생일빵을 선물하고 케이크에 초를 꽂아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긴 하루가 끝났나 싶을 무렵, 아띠들은 젊은 Y 스텝들의 연말술자리에 초대되었다. 아름다운 양곤의 야경을 보며 우리는 함께 미얀마 술게임 문화와 한국 술게임 문화에 대하여 공부하며 술을 축내었다. 달밤에 서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태정 아띠는 ‘디네 아롱 흘라레, 루초지.(오늘 다들 예쁘고 멋져요.)’ 를 외치며 별주를 마셨고, 권희설 아띠는 ‘디흐마 라삐비, 뽀레...(여기에 왔다, 기쁘다...)’ 라는 문장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별주를 마셨다. 김정식 아띠는 ‘췌두 시친데!(애인을 가지고 싶어요!)’ 를 처절하게 외쳐서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별주는 아슬아슬하게 면했다.

3시에 방에 돌아온 아띠들은 서로 새해인사를 건네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이좋게 행복한 잠에 깊게 빠졌다.

그렇게 그들의 2014년은 끝이 났다.

송다정 기자 (djhits1626@hotmail.com)



접해볼 수 있었고, 그들이 매운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며 웬지모를 매움매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파티에 대한 느낌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것도 느낄 수 있었다. 파티는 파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초대 하는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만난지 석달이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북적북적한 집에서 맨투맨 마크를 해준 뽕뽕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파티할건데 우리집에 놀러올래?

연말의 가족파티에 초대 받다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12월 14일 5인의 아디들은 아띠클럽에 참여하는 뽕뽕(24)의 가족파티에 초대받았다. 한국에서는 가족모임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흔치 않은 문화이지만 이곳에서는 딱히 그런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가족모임에 초대할 정도의 사이라면 여기또한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이여야만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지 얼마되지도 않은 우리들을 가족모임에 초대하다니! 아디들은 굉장한 놀람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뽕뽕의 집에 초대받은 5명은 라카인족의 음식을 처음

“오늘은 정말 친한 친구만 초대했어요. 딱3팀 초대했는데 그중 1팀이 여러분들이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예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 뽕뽕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미안마팀은 12월 14일 양곤 YMCA의 이사인 우 띨라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 띨라는 미안마팀과 항상 흘랑따야, 쉐빠따 등지의 클리닉에 같이 오가는 진료의(診療醫)로,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분이다. 귀가 잘 안 들려 아띠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항상 마주칠 때마다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는 분이다.

집은 공항 근처 Insane Township에 위치해 있었는데, 복잡한 다운타운과는 달리 조용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동네였다. 약간 오래된 2층 건물에 우 띨라 부부와 우 띨라의 아들 식구 9명, 고양이 대여섯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앞마당에는 잘 관리된 화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널찍한 뒷마당엔 잔디가 고르게 펼쳐져 있었다.

아띠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가 이들의 손을 잡아끌어 작은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의 탁자에는 산 음식들이 한가득 마련되어 있었는데, 산 출신인 우 띨라 며느리의 솜씨였다. 동그랗게 뭉친 밥을 여섯 가지 소스에 버무려 먹는 산 타밍, 산 두부 등이 줄줄이 나왔고, 옆에서 흐뭇한 미소로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아띠들의 그릇이 빌세라 계속 더 먹을 것을 권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접시를 비운 김정식(21)군은 “음식도 훌륭했지만 할머니가 정겹게 해주셔서 정말 좋았다. 마치 전주 할머니 집에 온 기분, 흑흑”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끝내고 아띠들은 우 띨라의 손녀 뚜뚜와 함께 동네를 거닐었다. 같이 온 세이뽕(27)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던 권희설 양(22)은 “매일 차를 타고 들르는 곳이지만

산 음식보다 더 푸짐했던 것은



실제로 거닐어보니 으리으리한 저택들도 많고, 도로도 깔끔한 게 확실히 잘사는 동네인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돌아온 우 띨라의 집에는 다시 주말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고양이들은 뒷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들의 주말을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택시를 탔다. 돌아가는 길에 신태정 양(21)은 “음식보다 이들 가족의 정(情)에 더 배부른 오후”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별난 양곤팀

12월 7일 시각은 오전 11시. 끝맺음의 약속이 없는 수다가 시작되었다. 지난 달 인생그래프 그리기에 이어 여가생활을 주제로 이야기의 장이 열렸다. 첫 시작은 차분했다. 모두들 한 손에 음료를 들고 여가생활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이야기 했다. 송다정아씨는 주로 막내동생에게 맞춰진, 가정적으로 짜여져 있는 주부9단 생활을 보낸다고 답했고, 백종석아씨는 주체할 수 없는 젊음의 피가 끓어, 친구들을 만나거나 자전거를 타고 홀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신태정아씨는 본인의 대학 근처를 맴도는 것을 좋아해,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했으며, 김정식아씨는 스쿠터를 타고 마을을 크게 돌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자주 가는 옷가게의 사장님, 산책하고 계시는 할머니들과 수다를 떠한다고 말했다. 권희설아씨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드나드는곳인 연구실에서 친구, 선배들과 가볍게 수다를 떨거나 점심메뉴에 대해 토론을 한다고 말했다.

오후 한시. 점심시간은 가볍게 생략되었다.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간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 설 틈을 주지 않듯이 수다 또한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점차 이야기의 카테고리가 다양해졌다. 사랑, 인생, 환경, 인권 등. 갑작스레 100분 토론의 자리가 형성되었다. 해가 저물어 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불타올랐다. 괜히 열 올릴것이 없는 자리에 아씨들은 발언권을 얻어가며 각자의 주장을 펼쳐내고 있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관찰하면 싸우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가 정리하자면, 그들은 대화하는 것에 몰두해 상황을 몹시 즐기고 있었다. 오해는 금물. 다시 한번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문지는 오래된 듯 했다. 지쳐버린 몇 명의 아씨들이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필자는 잠시 노트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몇분 후 송다정아씨가 다급하게 필자를 찾아왔다. 권희설아씨가 다쳤다는 것. 상황은 이리하였다. 평소 침대와 벽사이의 비좁은 틈에 서로를 밀어 넣어 괴롭히거나 인간 샌드위치 게임을 하는 등 유치하게 노는 아씨들. 이날도 평소처럼 그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힘 조절을 잘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시퍼렇게 멍든 권희설아씨의 눈. 12 시간 동안의 수다와 그 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사이에는 짜늘한 분위기만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씨들 서로 화해를 하며 이 사건이 약간은 다독여지는 듯 했다. 하지만 권희설아씨의 건강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올라 앞이 보이지 않아 활동에 함께

하지 못할정도였다. 현재 그녀는 과거의 미모를 되찾았으나, 붓기가 가라앉기까지는 2주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김정식 아씨가 만들어 준 안대를 하고 멋쩍게 웃는 권희설아씨.)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지라도 이제 더 이상 유치한 장난은 치지 않는다. 분명 격한 애정을 표현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지만, 이날의 사고를 굳이 언급하지도 않는다. 신체만 어른 모양으로 커버렸지 잘 노는 방법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양곤팀. 혹시 다치지 않고 흥겹게 노는 놀이법을 알고있는 팀은 필자에게 메시지로 공유 좀 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잘 익은 밤 고구마 삽니다.

☎ 119.8282.1004 코코

‘친한언니를 돕기 위해 구마광고 내뱉니다. 언니가 마을 활동을 나가기 전에 항상 고구마를 사는 곳이 있는데, 요즘 그 가게 문을 안 열더라고요. 고구마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언니인데..(글썩) 언니는 버스정류장 조금 못 가서 커브를 도는 곳에 고구마가게가 보이면 우선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강아지 같은 눈망울을 하고 고구마 손질 과정을 지켜봅니다. 고구마를 손에 얻은 뒤에는 그날 하루종일 그걸 먹고 있습니다.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를 외치면서 말이지요. 아, 그리고 가끔 저녁식사로 다시 한번 고구마를 사먹기도 합니다. 심한경우 1일 고구마 4개가 그녀의 식사량이라고 할까요. 언니가 어느 정도로 고구마에 중독되었는지 다들 눈치 채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사태의 심각성 또한 아셨겠지요. 주위에 밤고구마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 광고 냅니다. 꼭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지 않은 크기의 선명한 갈색을 띠는 고구마
- 밤 고구마 특유의 딱딱한 질감을 가진 것
- 밤 고구마 환영.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살짝 환영
-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질 듯 맛있는 고구마
- 목이 막힐때는 고구마를 하나 더 먹는 센스
- 장시간 손에 쥐고 있어도 모양과 맛이 흐트러지지 않는 고구마



버스가 오자 당당하게 종이를 보이며 ‘싸이뽀에 야오말라?(싸이뽀에 가나요?)’ 라고 물었더니 버스충각이 귀엽다는 듯이 웃으며 얼른 타라고 등을 떠밀었다. 돈을 내고 가장 뒷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척 연기하면서 해바라기씨를 까먹으며 현지인 코스프레를 했다. 가는 길을 대충 알고 있던 두 아띠들은 버스가 정선 스퀘어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정확히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송다정 아띠는 불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는 문 쪽을 서성이며 행여나 버스충각이 우리를 잊지는 않았을까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아띠들의 불안함을 눈치 채기라도 한 듯 버스 충각은 싸이뽀에역에 도착하자 아띠들에게 내리라고 사인을 보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정선 스퀘어가 나온다고 방향까지 알려주었다. 아띠들은 거듭 ‘쨌주베.(감사)’ 를 외치며 환한 얼굴로 버스에서 내렸다.

마타따 땀다, 하쿠나 마타따 (마타따 - 버스)

양곤팀 다섯 아띠들 중, 가장 미안미어가 약한(결코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다) 신태정 아띠와 송다정 아띠는 12월 23일, 역사적인 외출을 감행하게 된다. 바로 단 둘이, 버스를 이용해 양곤 젊은이들의 쇼핑1번지 정선 스퀘어에 다녀오기로 한 것이었다.

양곤의 버스와 한국 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정류장에 표지판이 있지 않다는 점과 버스

노선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곤 버스에는 70-80년대 한국 버스처럼 따로 돈을 걷는 ‘버스충각’ 이 있다.

신태정 아띠와 송다정 아띠는 Y 현지 스태프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선 스퀘어에 가는 버스 번호와 내려야 하는 버스 정류장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역 이름은 ‘싸이뽀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두 아띠들은 타야하는

몇 시간을 구경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득템까지 한 두 아띠들은 해가 지고 나서야 정선 스퀘어를 빠져나왔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길은 결코 버스를 못 타서가 아니라 버스를 탈 수 있지만 택시를 타자고 결정했다. 택시 가격까지 흥정해 바가지 쓰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Y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은 뿌듯함으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모험을 기약하며 즐거운 외출은 그렇게 끝이 났다.

송다정 기자 (djhits1626@hotmail.com)

12월 20일과 21일에 걸쳐 미얀마에서는 전국적으로 카렌족(카잉족)의 새해 축제가 열렸다. ‘땀잔’ 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버마족의 새해 축제가 4월 중에 열리는 것처럼, 카렌족도 그들의 새해를 축제와 함께 12월 중에 맞이한다.

새해 전야인 20일 밤, 양곤팀은 Y 널서리스크 선생님인 카렌족 너(Naw) 에띠포와 함께 알롱 타운쉽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을 찾았다. 알롱 타운쉽은 양곤에서도 카렌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장소는 Yangon Kayin Baptist Home Mission Church였다.

교회 구역 안의 넓은 공터에는 야외무대가 설치되었고, 카렌족 전통곡과 현대가요가 공연되었다. 무대 뒤편에는 카렌족의 깃발이 큼지막하게 걸려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채우고 있었기에 늦게 도착한 양곤팀은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공연장 바깥에는 카렌족의 전통의상과 가방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다. 카렌족의 역사, 전통 악기, 문학서적 등을 전시해 놓은 부스도 있었다. 그곳에 걸려 있는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는 영국의 지배에 맞서 카렌족의 명예를 지킨 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산드라의 할아버지이기도 했다.

에띠포 선생님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새해 당일인 오전 6시쯤이다. 사람들은 해가 밝는 것을 보면서 카렌족의 전통춤과 노래를 공연한다.” 고 밝혔다. 그렇다면 카렌주에서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양곤팀이 경험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월 25일자 ‘카렌 뉴스’ 에 실린 새해 축제에 관한 기사(Karen News, "Thousands Celebrate Karen New Year and DKBA Day", 25. Dec. 2014, Saw Thein Myint)의 일부를 이곳에 간략히 전한다. 카렌 뉴스는 카렌주에서 새로이



12월 21일에 밝아온 새해 - 축제로 맞이하다

다가오는 2754년과 새해 바로 전날이 창설 20주년인 DKBA(the Democratic Karen Benevolent Army)를 기념하는 축제를 위해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카렌 주민들, 정당 대표들, 카렌주 정부 관료들과 시민사회 집단들이 참석했다.

축제 주최자 중 한 명인 Naw Sandar Wine은 “버마내의 많은 정치·사회 조직들을 보게 되어 기쁘고, 다른 민족들과 정부 관료들도 카렌족 새해 축제에 참여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카렌 조직들도 카렌족의 새해를 우리와 함께 기념하기 위해 돌아왔다.” 고 밝혔다.

축제는 군대 퍼레이드와 다양한 정치·종교 분야 지도자들의 새해 연설, 카렌족의 전통춤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DKBA의 Saw Mo Shay 장교는 “우리가 카렌족 새해를 DKBA의 날과 함께 기념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시민들이 있다면, 군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시민들은 군대를 사랑해야하고 군대는 시민들에 반대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함께 우리 카렌족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분투를 계속하자.” 고 축제에 대한 메시지를 밝혔다.

카렌족은 버마족 정부에 대항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강경하게 싸워온 집단 중 하나이다. 카렌족 군대가 버마족 정부와 정전협정을 맺은 것은 불과 2012년의 일이다. 그러니 카렌족의 깃발을 걸고 전통춤을 공연하며 카렌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새해 축제가 무엇을 의미할지는 짐작해볼 만하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권기자의 여행수첩 엿보기]

4박 6일간의 산주(state)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기 바쁘게 아띠들은 양곤 Y의 모바일 클리닉을 따라 미얀마 동쪽에 위치한 산주로의 여정길에 올랐다. 올해를 시작으로 산주에서도 연 1~2차례씩 Y 모바일 클리닉을 열기로 한 것이다. 산주는 양곤 Y의 사무총장인 우따난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띠들이 단순히 클리닉에 동행하여 공짜(?) 여행만 하게 된 것은 아니다. 클리닉이 열리는 마을에서 아띠들은 아이들을 위해 두 차례 수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낯선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아띠들은 미얀마 내에서 양곤을 벗어나 다른 어딘가로 떠난다는 최초의 설렘에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이러한 아띠들의 여정에 산드라의 어머니와 조카, Y 이사회 멤버이자 의사인 우따라와 그의 손녀 뚜뚜, 클리닉의 미인 간호사 싯키포, 그리고 Y 스태프인 소글레이도 함께했다. 더불어 유스 프로그램차 미얀마에 온 싱가포르 메트로폴리탄 YMCA의 열다섯 청년들이 함께하게 되었으나…… 대인원의 산주 원정대(?)가 꾸려진 셈이었다.

1. 호수는 넓고 볼 것은 많다

새벽 6시가 다 되어 아띠 일행은 인레 호수가 위치한 나웅쉴에 도착했다. 인레 호수는 미얀마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꼭 한 번은 들어봤을 유명한 곳이다. 길이 22km, 너비 11km인 이 거대한 호수는 미얀마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삶을 꾸리는 터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호스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아띠 일행은 인레 호수로 가는 보트 위에 올랐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30분쯤 달리자 인레 호수의 입구가 나타났다. 입구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었던 것은, 폭이 좁은 긴 배 위에서 자기 몸집만한 통발을 들고 한쪽 발로 노를 젓는 잉따족 어부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호수 위의 삶을 그 한 동작에 담아 표현하듯, 아띠들이 탄 보트를 향해 한 어부가 포즈를 취했다.

물 위로 높게 솟은 집들 가운데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운영하는 공작소들이 많았다. 아띠들은 총 세 곳의 공작소를 방문했다. 잉따족의 천 공작소, 은공예 하우스, 그리고 빠다웅족 여성들의 공작소였다. 공작소들은 직원들의 작업 공간과 완성된 물건을 파는 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띠들이 방문했던 곳들 중에서는 잉따족 여성들의 공작소가 가장 컸는데, 연줄기를 꺾어 실을 뽑는 것에서부터 염색과 베틀 작업을 거쳐 한 벌의 룬지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두 눈으로 보는 섬세한 작업들과 각 민족의 아름다움이 담긴 공예품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호수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인레 호수는 양곤에서 보지 못했던 미얀마의 또 다른 면으로 아띠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의 감각들을 선물했다. 그런 호수를 뒤로하며, 아띠들은 곧이어 높은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했다.



#2. 짧지만 황홀했던 마을 생활

마을 살이에 대한 꿈을 품고 있던 아띠들에게 3 일이라는 마을에서의 시간은 짧지만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아띠들이 도착한 빼이내뽕 마을은 빨라웅족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으로, 줄줄이 솟아오른 커다란 산들 가운데 하나에 자리한 마을이었다. 아띠들은 마을 학교 선생님의 친척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날이 밝자 산자락을 붙어 있는 마을의 모습이 한 눈에 보였다. 선생님의 친척집은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산에서 채석한 돌을 갈아서 만든 2층짜리 벽돌집이었다. 1층에는 장작을 때는 부엌이 있었고, 2층이 지는 방이었다. 2층 방 안에는

부처를 모시는 작은 사당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집밖에는 우물과, 용변만 보는 용도의 화장실이 있다.

마을 중심부의 너른 길을 올라가다 보면 불교 사원이 있고, 그 뒤로 1층짜리 집이 한 채 있었다. 이 집은 대규모 산팀의 식사 공간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3일 동안 양곤팀과 싱가포르팀은 식사당변을 정해서 함께 식사 준비를 했다. 음식은 마을과 산에서 난 것들이었다. 닭튀김과 신선한 채소들, 폭 익은 늙은 호박과 토란국, 감자와 비슷한 맛이 나는 고라카디 열매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차갑고 맑은 공기가 드나드는 집에서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 다 모여 밥을 먹었다. 산에서 따온 오렌지와 아보카도가 후식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가로등 없는 마을은 추운 어둠 속에 잠겼다. 아띠들은 저절로 온기를 찾아 식당 옆 부엌에서 아직 타고 있는 장작불 주위에 둘러앉게 되었다. 그곳에서 요리를 도와주신 셰프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의 날씨, 빼이내뽕의 날씨, 라페발 농사, 학교, 셰프 아저씨의 가족 등 무엇을 얘기하든 재미있었다.

손전등으로 길을 밝히며 숙소로 돌아온 뒤에는 방에서 남은 이야기를 계속 하거나 각자 일기를 쓰다가 잠들었다. 산드라네 식구들과 함께 잤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기도 해서 여자 아띠들은 누가 산드라 옆에서 잘 것인가를 두고 몰래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벽의 추위를 작은 이불 한 장으로 맞서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누가 되었는지 옆에서 지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모자란 이불만큼의 온기였다.

아띠들에게 기꺼이 숙소를 제공해주신 학교 선생님의 친척 가족들은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아띠들을 자식들처럼 대해주었다. 특히 주인아주머니는 김정식 아띠를 흘끗 보더니, 자신은 아들이 없는데 김정식 아띠가 힘이 셀 것 같다며 우리 집 아들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모두에게 웃음을 안겼다. 만약 이 마을에서 남은 한 달을 보낸다면, 모두들 바구니를 매고 산에 올라 오렌지를 따고 있을 것이란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었다.

#3.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기

식당 집에서 비탈길을 걸어올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을 학교가 있었다. 넓은 운동장에 70여명 가량의 학생들이 사복 차림으로 모여 있었다. 방학 기간인데다 주말이었는데 양곤팀과 싱가포르팀을 위해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부른 것이었다. 양곤팀과 싱가포르팀은 각자 준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오전, 오후 2시간씩을 나누어 수업했다.

김정식 아씨가 우렁찬 목소리로 체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킁킁거리며 동작들을 따라했다.

띠(1)-호니(2)-똥(3)-레이(4)-옹아(5)를 외치며 순서대로 손 씻는 연습도 아이들은 곧잘 익혔다. 둘째 날에는 말도 안 했는데 체조가 끝난 뒤에 손을 씻으려고 우물가로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씨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그렇게 씻고 있다면 좋겠다.

빼이내뽕에서의 수업 방식은 아씨들이 쉐베타에서 하는 것과 똑같았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보물찾기를 시도해 보았다. 수업 전날 산드라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칫솔 9개와 비누 1개를 아씨들에게 주었는데, 경쟁하는



방식을 피해서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운동장에서 보물찾기를 하기로 한 것이다. 못 찾아서 실망하면 어떡하나 했던 것은 괜한 걱정이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칫솔 8개와 비누 1개를 찾아냈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아씨들에게 산드라는 “4개월의 경험이 너희 팀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활동사이트 에서의 노하우들이 쌓여 어느새 아이들과 잘 만나는 아씨들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 양곤팀 수업 내용

| | 28일 | 29일 |
|-----|----------------|--|
| 1교시 | 맨손체조 + 손 씻기 연습 | 맨손체조 + 손 씻기 연습 |
| 2교시 | 종이접기 | 보물찾기 |
| 3교시 | 가족 그림 그리기 | 신문지 모자이크(다정,태정) 종이배 접어서 꾸미기(종석) 물감으로 놀기(희설) 사진 및 보조(정식) |

▼ 일정 간략히 보기

| | |
|-----|--|
| 26일 | 양곤 버스터미널 출발. 11시간 Night Bus. |
| 27일 | 나옹쉐 도착. 인레 호수 관광. 빼이내뽕 마을 도착. 숙박 시작! |
| 28일 | 마을 학교 방문. 싱가폴팀 오전수업. 양곤팀 오후수업. 우따난, 우뎨라 마을 도착. 클리닉 시작. |
| 29일 | 양곤팀 오전수업. 싱가폴팀 오후수업. 휴식 또는 마을 산책. |
| 30일 | 옆 마을인 드차 마을 방문. 모바일 클리닉 진행. 절리로 이동 후 등산. 버스터미널에서 출발. 11시간 Night Bus. |
| 31일 | 양곤 도착. |

신태정 - 빼이내뽕 마을에서의 3일간 생활은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같았다. 내가 바라던 마을살이 그 자체였다. 이 집에 들어가서 수다를 떨고 저 집에 들어가서 점심밥을 먹었다. 그 짧은 날에 나에게 할머니가 생겼고 어머니, 여동생이 생겼다. 덕분에 홈스테이를 못했던 설움을 조금은 털어냈다. 커다란 도시 양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소박한 정이 묻어났던 마을 빼이내뽕. 다시 가고 싶다.

송다정 - 거기는 산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다. 포장되지 않은 황토색 흙길이 있었고 굴나무들이 있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고 장작더미들이 있었다. 해가 지면 가로등이 없는 마을위로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별들이 떴다. 장작 타는 냄새가 참 좋았는데.

백 - 양곤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본다는 것 자체로 잔뜩 설레었다. 그리고 산의 경이로운 호수, 별, 산을 보고나선 또 한 번 설레었다. 이 나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게 확실하다. 저 지평선 너머엔 또 어떤 풍경과 사람들이 펼쳐져 있을까, 하고 상상하며 산에서 혼자 참 많이도 싸들아 다녔더랬다. 그와 더불어 짧지만 진했던 사람들과의 부대낌. 같이 생활했던 마을사람들과 싱가포르 청년들, 그리고 같이 간 Y 사람들까지 전부 친척처럼 느껴졌었다. 그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을 끈끈하게 맺어주는 힘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식 - 아름다운 환경과 갑작스런 추위, 따뜻한 모닥불과 정신없는 필리핀 아이들, 반할정도로 순수한 이단다와 아주머니 아저씨들. 배는 아팠지만 가장 배가 따뜻했던 기억이 아날까

Art of 산



미얀마 주요뉴스

[편집 = 백종석 기자]

‘헤드폰 쓴 석가모니 그림 용납할 수 없다’

미얀마 양곤에서 서구식 바를 운영하는 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헤드폰을 착용한 석가모니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올렸다가 현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체포됐다. 가게 홍보를 위해 이같은 그림을 올린 것이지만 불교를 신성시하는 미얀마에선 큰 논란거리가 됐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사이키델릭’(psychedelic)한 헤드폰을 쓴 석가모니의 그림을 올린 이는 뉴질랜드 출신의 필립 블랙우드(32)로 그는 ‘종교를 모독’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블랙우드는 즉각 그림을 삭제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성명을 게재했으나 해당 점포인 V개스트로바 주인 톤 투레인(40), 동료 흐트 코코 르윈(26)과 함께 체포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이 점포는 문을 연지 2주 만에 문을 닫았다.

블랙우드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수감되기도 했던 인세인 감옥에서 투옥중이며, 징역 4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V개스트로바의 게시물에 “이는 불교와 전 세계 5억 명 불교신자, 미얀마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 된 탓에 블랙우드는 자신을 변호할 마땅한 변호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불교 민족주의 단체인 969 지지자들이 세 사람이 재판을 받는 법정 밖에 모여 시위 진압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강력한 불교국가로 강경파 민족주의 승려들의 정치적·사법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종교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지난 2012년 서부 라카인주에서는 소수 무슬림 민족인 로힝야족과 불교신자들의 충돌로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매튜 월튼 옥스포드 세인트 안토니 칼리지 현대 버마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얀마 불교신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상당수가 이를 과잉반응이라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NBC에 따르면 이번 블랙우드 사건은 미얀마에서 서방 국적자가 종교적으로 민감한 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이다. 블랙우드는 행위에 악의는 없었다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yymoon@heraldcorp.com

미얀마 양곤서 60년 만에 주민투표...내년 총선 앞둔 민심은?

미얀마 양곤에서 27일(현지시간) 60년 만에 주민투표가 개최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11년 군사정부를 대신해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서는 시 개발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사업가, 인권운동가, 은퇴 공무원 등 300명의 후보는 115개의 위원직을 놓고 경쟁한다. 그러나 최고위직은 대부분 임명된다고 AFP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내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임대료 상승, 교통 혼잡 가중, 공중 보건 및 오염 통제 등과 관련해 불만이 가중되는 양곤 시민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백만명이 거주하는 양곤시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유권자는 40만명에 그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투표를 통해 군사 정권에 억압됐던 민주화 열망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날 타케타 마을에서 투표에 나선 주민 킨 마웅 툰(50)은 "60년만의 첫 시 개발위원회 위원 선출 투표이기 때문에 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산추앙구에서 투표를 마친 폰 마우 린은 "난 후보자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투표하는 동안 그들의 이름 정도만 알아봤다"며 "투표로 중요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FP통신에 "후보자들이 보는 앞에서 개표 작업을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뉴스1]

미얀마는 중고차가 90%... 해외 신차 고전

미얀마 자동차 시장에 새 차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주로 수입 중고차가 거래된다. 이렇다보니 해외 브랜드 자동차를 전시판매하는 곳이 고전하고 있다. 또 자동차 업체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를 포함한 몇몇 자동차 브랜드들이 지난해 미얀마에 자동차 전시판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다들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한 일본 자동차업체가 미얀마에서 생산을 검토하다 말았다. 이 업체 경영진 중 한 명은 닛케이에 “우리가 현지에서 어떤 모델을 생산하든지 그 모델의 중고차와 가격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닛산자동차는 이르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 제휴 회사를 통해 미얀마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닛산이 미얀마 공장을 계속 돌릴 정도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다른 업체들은 보고 있다.

미얀마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90%가 중고차다. 중고차는 주로 경매 웹사이트를 통해 미얀마에 수입된다. 대개 출시된 지 3~5년 된 차가 미얀마에 수입된다.

미얀마 승용차는 현재 약 50만대가 등록됐다. 지난 3년 새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연 평균 26% 급성장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미얀마에서만 중고차가 이렇게 잘 팔린다. 말레이시아는 중고차 수입을 제한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아예 금지한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제조한 중고차가 수입돼 잘 팔리면 자국 자동차공장에서 만들어진 신차가 덜 팔릴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얀마는 신차에는 높은 수입관세를 매긴다. 관세가 높다보니 같은 모델 신차 값이 3년 된 중고차의 두 배에 이르기도 한다.

군부 독재 시절 자동차 수입은 소수에게만 허용된 특혜였다. 미얀마가 민주화되고 2011년 취임한 테인 세인 대통령은 2012년 5월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지난해에는 신차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약속 지키는 ‘우정의 다리’ ..韓·미얀마 경협大路 뚫렸다

15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시 북부의 한 선착장. 양곤강 북단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만난 소 탄 씨(38)는 “양곤강 남단 달라 지역으로 생필품을 운송하기 위해 페리가 하루에 두 번씩 강을 왕복하고 있다”며 “양곤시 북부와 달라 지역을 잇는 다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5년 후부터는 소 탄 씨 인생도 달라질 전망이다.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인 양곤시 북부와 남부 달라 지역을 처음으로 잇는 ‘우정의 다리’가 착공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얀마 양곤 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얀마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에도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의 강남 격인 달라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달라 지역의 면적은 28.32km²(약 850만평)로 개성공단 크기 정도다. 커무, 쿤찬공 등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양곤강 이남 면적은 약 1800km²로 서울시 면적(605km²)의 3배에 달한다.

중국과 일본도 양곤강 다른 지역에 차관을 통한 다리 건설 수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선제적 차관지원으로 새 경제특구 개발을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양곤사무소 등에 따르면 EDCF 집행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미얀마 공공사업청은 지난 12일 총사업비 1억 6800만달러의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1억3800만달러의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회의록(MOD·Minutes of Discuss)을 작성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달 미얀마에서 만난 데 이어 지난 11일 부산에서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은 양국 정상들의 외교적인 노력의 대표적 성과다.

이 MOD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달 중 차관지원을 위한 정부승인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미얀마 정부도 다음달 중순 예정된 국회에서 차관 도입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MOD는 4차로 주교량과 양방향 접속교, 램프교를 포함한 총연장 2.9km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의 설계·감리, 시공을 입찰을 거쳐 한국 설계사·건설사들이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얀마 국회의 차관계약 확정과 더불어 양국의 차관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15개월의 설계·입찰, 45개월의 시공·감리 등 총 5년에 걸쳐 우정의 다리가 건설된다. 다리는 양곤시의 국도1호선, 내부순환도로와 연결돼 양곤시 교통의 허브를 형성하게 된다.

다리가 건설되면 미얀마는 페리에 불과했던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이자 해안 지역인 달라 지역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대외교역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한국 건설사들도 이번 차관 지원으로 대규모 교량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됐을 뿐 아니라 황무지나 다름없는 양곤시 남부 달라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구축 등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더욱이 우정의 다리 건설을 놓고 한국 측 지원 규모는 그동안 양국 경제교류에서 걸림돌이었다.

2012년 양국 정상은 교차 방문 과정에서 우정의 다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EDCF 차관)를 병행하자는 미얀마 정부의 요구가 거듭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결국 이 사안 때문에 국내 민간 기업들의 다른 사업도 차질을 빚은 게 사실이다. 국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우정의 다리 건설에 대한 한국 측 지원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금융사 인허가도 막혀 있었다”며 “이번 차관 지원 결정에 따라 양국 경제교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손승호 수출입은행 EDCF 양곤사무소장은 “막대한 금액의 무상원조를 내세웠던 일본·중국과 달리 대일본 가격경쟁력과 대중국 기술경쟁력을 무기로 차관 사업에 집중해온 성과”라며 “미얀마 정부도 대표 공여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시행착오를 통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교훈을 갖게 된 점이 의의”라고 설명했다.

미얀마측 기대도 크다. 윈 아웅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달라 지역은 중국 상하이의 푸둥지구보다 한국 서울의 개발 이전 강남지역에 가깝다고 본다”며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기술인력들의 미얀마 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양곤 = 정석우 기자]



(사진) 양곤 시청 앞에서 대학생들이 사건관련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구리광산서 시위로 10여 명 사상

토지 보상과 환경 훼손으로 논란을 빚는 미얀마 구리 광산에서 시위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와 중국 완바오가 합작으로 운영 중인 모니와 지역 레파다웅 구리 광산에서 22일 주민들이 토지 몰수 및 보상과 관련해 시위를 벌였으며, 이에 따른 충돌로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AP, 교도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숨진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발포자가 경찰인지, 광산 기업 경비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레파다웅 구리 광산은 환경 훼손과 강제 토지 수용 때문에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12년에는 주민과 불교 승려들로 구성된 시위대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인체에 치명적인 백린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승려 수십 명이 크게 다쳤다.

출처 - [방콕=연합뉴스] 현경숙기자



고구마가 기막히게 맛있기 때문에
2개에 500원이기 때문에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인사해주는 아이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한국까지 데려다준다고 장난치는
쪄소모 때문에

멍 때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끔 진지한 생각도 하기 때문에
거리를 내려다보고 별을 올려다볼 수 있는 발코니에
서있기 때문에

역시나 모든 것을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월 한 달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채로운 일정들을
소화해내느라 몸이 지쳤었지만, 그 안에서 느낀
것들이 참 많다.

기존 마을 활동에서의 수업 커리큘럼을 회의할
때는 이제는 다들 이 나라와 마을, 더 깊숙히는
우리가 만나는 유아, 아이들, 청년 그룹 각각의
성향을 어느 정도 분석하게 되어서, 커리큘럼의
내용이 풍부해졌다. 초반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업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하고, 갑작스레
환경개선 작업에 들어가서 이를 시작함과 동시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욕심 가득한 일들을 마구
해내고 있다.

11월 활동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들은 총
활동 사이트 네 곳 중 세 군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오고 있다.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교통체증 등의
상황으로 출발, 도착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마을에서의 정규적인 활동 후에는 주민 분들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마을 이곳저곳을 걸어 다닐
여유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감’ 이라는 게
잡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마을 알아가기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 쉼피따 에서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을 집까지 배웅해주며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다거나

주변에 마음씨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

2014년은 그렇게 끝났다.

오! 그러면 된 것 같다. 아주 괜찮은 것 같다.

P.S 노란 배지(라온아띠 국내훈련 중 느티나무
작은도서관에서 받은 것.)는 여전히 내 가방에
매달린 채로, 무더웠던 여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100일 집회 날을 상기시킨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휴일이 생겼을 때 다정언니와 단 둘이서 버스를
타고 훌쩍 여행을 떠나는 식으로 말이다.

제약되어있는 시간에 아주 사소한 일 일뿐이지만,
이러한 작은 것들을 나와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였고
오늘 반가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반대로 말하면 짜여있는 일정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아니 있었다. 초반에는 적응하기에도
바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도 있었다. 지금 현재는
떠오르는 것은 많고 시간은 모자라 지루할 틈은 전혀
없다. 이 전부를 보면 암전한 것을 지루해 하는 것이
나 자체일수도 있겠다.

이 곳을 알게 되고 익숙해지는 데에 긴 시간이
걸렸다.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애석하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예전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이고 더욱 열정적으로 살다갈 것이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시간’ 이라는
그 사실이 알아우면서도 고마울 뿐이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12월에 대한 것이 아닌 12월 에세이

집중이 안 된다. 12월 개인에세이를
써야하는데 한참을 빈 종이를 바라보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나버린
12월보다 남은 마지막 한 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이제야
이곳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아예 이미 귀국했다면 이미 끝이 난 것을
인정했겠지만, 지금은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하는 가장 어중간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다. 귀국이 싫다기보다는
여기가 좋다. 2-3주 뒤라면 여기저기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있겠지.

하야, 생각하다보니 더 쓰기 싫다.

송다정 기자 (djhits1626@hotmail.com)



백

새해를 맞는 기분

스물다섯이 되었다. 타지에서 나이를 먹는 게 낯설지만은 않은 게, 스무 살 이후로 네 번은 낯선 곳에서 새해를 맞았었다. 그렇지만 이번 새해맞이는 조금 더 선명하고 따듯했다.

31일 자정, 거리에서 사람들이 'HAPPY NEW YEAR' 를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YMCA 직원들의 '비밀파티' 에 초대되었다. 건물 옥상에서 직원들끼리 총장님 몰래 조출한 파티를 벌인 것.(쉿, 이건 여전히 비밀이다.)

함께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한국에 비하면 순박한 술 게임을 하면서 왠지 모를 짝한 감정을 느꼈더랬다. 이들과 네 달을 함께 지낸 끝에 함께 한다는 동질감, 친밀감을 느껴서일까, 아니면 이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정말로 나쁘지 않은 새해맞이였다.

이제 2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다시 조급증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면, 이 시간들을 기억하자. 그 때의 공간과, 노래와, 사람들을 떠올리자. 올해는 더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

별 고민 없이 산다.

이달의 반성, 시간이 갈수록 고민을 안 하며 산다. 물론 개인적인 고민은 항상 있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적응을 넘어 무더진 느낌.

매주 정해진 스케줄대로 활동을 하고 돌아와 숙소에 들어서는 순간, 활동 중에 들었던 모든 생각과 감각들은 뒤로하고 그저 편하게, 즐겁게, 지내려고만 했다. 그날그날 닥친 활동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우리가 그려가는 행적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살아감에 있어 항상 고민이 필수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 없이 지나쳐버린 것들이 떠오를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헛갈릴 때, '고민이 없다는 고민' 을 하게 된다.

우리 안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팀은 크게 싸운 적도 없고, 틀어진 적도 없다. 그렇지만 그 고요한 평화 상태를 들춰다보면 각자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보이고, 서로에 대한 친절에선 자기방어의 몸짓이 느껴진다. 나는, 우리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해가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였다. 한 달 남은 우리의 활동도, 내가 살아온 나날들도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였다. 한국을 떠나오면서 떨쳐버린 줄 알았던 그 생각이 다시 든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그럴 때면 베란다에 나가 천천히 흘러가는 양곤 강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곳의 일상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용기를 얻는다. 늦었다고 하기엔, 남은 한 달과 내 청춘에게 너무 미안하다. 늦으면 늦은 대로 내 속도에 맞춰 걸자. 장기하의 노래처럼 다시, 느리게 걸자.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아 시뻘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보고 지나치겠네

아 채찍을 든 도깨비 같은
시뻘건 아저씨가 눈을 부라려도
아 적어도 나는 니게 뭐라 안 해
아 그저 아 잠시 없었다 다시 가면 돼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우리는 느리게 걸자 걸자 걸자

점심때쯤 슬슬 일어나
가벼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양말을 빨아 잘 펴 널어놓고
햇빛 창기에서 차를 마셔보자

식

배가 '진짜' 많이 아팠던 한 달 이었다. 음식 때문에 물갈이는 하는 것 치고는 석 달 동안 너무나 평탄한 몸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그것 또한 아닌 것 같다. 가장 쉬는 날이 많았던 한 달이었기에 쉬는 동안 몰린 피로가 수면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고 해도 그것을 덮을 만큼 쉬는 날이 많았던 말이다!

하지만 왠지 의심이 가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스멀스멀 목구멍을 타고 기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생활에 이미 적응을 해버렸고 노하우들 또한 하나 둘 씩 늘어가기에 이것들이 욕심이 나는 것이다.

넉 달째 되는 지금, 앞서 고민했던 관계나 시간과 같은 것들은 작아지고 또 작아져왔고 지금은 딱히 고민거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괜히 불안하기 까지 하다.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 모습과 거의 같아져 버린 것이다. 고민이 없는 삶, 적당히 분주하고 적당히 쉬는 삶, 시간도 넉넉해지고 사람들과도 익숙해져버린 모습이 되어 버렸다.

30일도 채 안남은 이곳의 삶을 마무리 하려니 이곳의 음식과 얼굴들, 그리고 익숙해져 버린 걸음걸이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위장에 복통을 일으키고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라 의심해본다.

그러나 모든 아픔들이 그렇듯 아프고 난 뒤에 돌아오는 깨끗한 몸과 정신의 상태는 누구나 알고 있기에 지금의 고통 뒤에 찾아올 익숙하며 새로운 상태를 기대해본다. 더욱이 헤어짐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 를 연발하며 다음 5명은 3월에 온다는 사실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입 밖으로 내뱉고 있다. 동시에 언젠가 다시 만나는 상상을 하며 울지 안 울지 모르는 그림을 그려본다. 입술이 하죽거리며 거울을 응시한다. 천천히 짐을 싸며 스물다섯 밤의 쌓일 추억들을 정리해야겠다고 작심삼일 다짐해본다.



12월 활동일정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 Hlaing Tharyar | 2 Shwe phi thar | 3 Day off | 4 Shwe phi thar | 5 Hlaing Tharyar | 6 Yangon YMCA | 7 Day off |
| ●A.S 환경개선 사전 조사 | ●마을 라운딩 회의 (주2회 방문 여부 회의) | ●쉐비따 주2회 방문 여부 회의 및 쉐비따 수업 준비 | ●체육수업 ●모자이크 수업 | ●N.S ●A.S 모빌만들기 (크리스마스 파티준비 1차 수업) | ●미얀마어 수업 ●A.C ●보고서 회의 | ●깊은 나눔 (여가생활 이야기) |
| 8 Day off | 9 North Okkalapa | 10 Hlaing Tharyar | 11 Shwe phi thar | 12 Hlaing Tharyar | 13 Yangon YMCA | 14 Social |
| ●보고서 정리 | ●울동게임/ 체조 | ●A.S 환경개선 (벽작업 - 그라인딩 및 갈라짐 보수작업) | ●모자이크 수업 | ●N.S ●A.S (트리만들기 모빌 꾸미기 파티준비 2차 수업) | ●크리스마스 파티 ●N.S - 보조 ●A.C | ●뽀뽀 신년파티, ●우 띨라 댁 초대 |
| 15 Hlaing Tharyar | 16 North Okkalapa | 17 Day off | 18 North Okkalapa | 19 Hlaing Tharyar | 20 Yangon YMCA | 21 Day off |
| ●A.S 환경개선 (갈라짐 보수작업/ 페인트 작업 - 기본색) | ●N.S - 활동보조 | ●11월 활동보고서 제출 | ●N.S - 크리스마스 파티 보조 (선물전달) | ●N.S - 크리스마스 파티, ●A.S - 크리스마스 파티(카드만들기, 다과회, 트리장식), ●A.S - 환경개선 작업(페인트) ●YMCA 직원들과 같이 캐롤 원정 | ●A.C - 피크닉 ●카렌축제 참여 (에띠 선생님/ 띨띠) | |
| 22 Yangon YMCA | 23 Day off | 24 Hlaing Tharyar | 25 Shan State | 26 Shan State | 27 Shan State | 28 Shan State |
| ●YMCA 전 직원 및 이사, 관계자들 크리스마스 파티 | ●Shan state 수업준비 | ●M.F(마이크로 파인낸스) - 크리스마스 파티 보조 ●A.S 환경개선(페인트 /칠판) | ●아띠 크리스마스 파티 (닭 튀김 요리) | ●Shan state 출발 | ●Shan state 도착, ●인레호수 관광 ●베이네빈 마을방문 | ●마을학교 수업 (체조, 손 씻기, 색종이 접기, 가족그리기) |
| 29 Shan State | 30 Shan State | 31 Social | | | | |
| ●마을 학교 수업 (보물찾기, 손 씻기, 물감 모자이크, 종이 배 꾸미기) | ●따웅니/ 깔러 방문 | ●뽀뽀 연말파티, ●산드라 연말파티 ●김정식 아띠 생일 | N.S - Nursery School A.C - ATTI Club A.S - ATTI School | | | |